

# 양국 적대 관계 청산...수교 논의 첫 단추

## 북·미 뉴욕 관계정상화 회담 첫날

### 김계관 외무성 부상 “잘 되리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은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양국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를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오전) 뉴욕에서 열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이 주최한 이번 회담은 2002년 10월 2차 북한 핵위기 발발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음 열린 북미간 공식 양자회담일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

담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간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 내 유엔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의제와 향후 협상 일정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

해졌다. 힐 수석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항공편으로 뉴욕에 도착, 오후 5시20분 택시편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으며 북한의 김계관 대표는 5시40분께 호텔에 도착, 회의에 들어갔다.

양측 대표단은 회의에 이어 만찬을 겸한 회동을 계속했으며 회의 시작 약 4시간 25분만인 10시 5분께 김 부상 일행이 회담장인 아스토리아 호텔 밖으로 나왔다.

김 부상은 숙소인 밀레니엄 유엔 플라자 호텔에 도착해 회담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한 대표단 관계자는 “아직 회담 중입니다”라고만 대꾸했다.

양측 대표단은 6일 오전부터 회담을

계속한 뒤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회담에 앞서 진전을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잘 되리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실했다.

북한측 대표단 관계자들도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지만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미사일·마약 등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 등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향해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두루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회담과 관련, 장소를 평양으로 정하고 북한이 힐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의

방북을 초청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힐 차관보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김 부상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상은 이날 북미간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헨리 키신저, 매들리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의 전현직 관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다.

/뉴욕=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문화전당 설계 다시하라



김주정

사회1부 차장

‘아시아문화전당’의 지하 설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문화중심도시특별법 발효 등 본격적인 문화수도 조성을 앞두고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를 재검토하면서 생긴 변화다.

때맞춰 지난 2일 열린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의 워크숍에선 지하 구조물도 이뤄진 문화전당 설계에 대해 의욕 제기하고 성토가 이어졌다. 류재한(전남대) 교수는 “지난 2004년 문공부 관계자들이 농담처럼 주고받은 전당의 지하설계 개념이 결국 당선작에 반영됐다는 얘기가 문화중심도시 홍보책에 나와 있다”며 사전주문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지하로 가는 문화전당으로서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비 300여원을 포기하더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현·주정민(전남대)교수 등은 “통상 랜드마크는 거대한 건축의 조형미에서 찾는 데,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는 데서 구현할 수도 있다”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보완하고, 나머지는 콘텐츠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전당을 지상형(地上型) 불거리(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우규승씨의 작품 ‘빛의 숲’(Forest of Light)이 국제설계경쟁에서 뽑히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선작이 개방형 지하광장 형태로 건축과 조경의 경계를 허문 자연 친화적 작품이지만,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이여야 할 전당을 암울한 지하에 두는, 도지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문공부 추진기획단은 “과거에는 산업·경쟁력을 과시하는 고층 건축물이었지만, 요새는 친환경 건축물이 랜드마크”라는 개념 변화를 주장하며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문화도시 조성위 뿐 아니라 광주시와 시민 등의 반발을 샀고, 청와대가 나서 추진체계와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새 틀을 짜겠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교류와 소통을 목표로 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이 제야 여론이 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나온 것이다.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통찰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변화 그 자체라는 패션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청바지의 대명사 ‘리바이스’(Levi’s)도 10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해왔다. 가능성 때문이다.

위대한 건축물은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준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나 베를린 소니센터가 모두 그렇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주변을 빨아들여 시각적 환희와 예술적 기쁨을 선사하는 세계인의 순례지가 됐으면 한다.

/jjnews@kwangju.co.kr

## 실무그룹 첫 회의 이모저모

### 007 작전 방불 철통 보안속 진행 회담장 반총장 관저와 인접해 관심

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는 이례적인 철통 보안속 진행됐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언론과의 대면을 꺼리지 않는 평소 스타일과는 달리 이날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택시를 타고 기자들 사이를 그대로 지나쳐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 앞에 내리뛰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내 유엔 주재 미 대사관저로 직행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아예 기자들이 몰려있는 50번가쪽 호텔 출입구를 피해 다른 쪽 비상통로로 자동차를 진입시켜 007작전을 벌이듯 회의장으로 올라갔다.

양측 대표단이 회담장으로 올라가자 경찰은 호텔로 통하는 주차장 진입로를 경찰차로 막아놓고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의 발연과 모습은 제대로 담지 못한 수많은 취재진은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양국 대표단이 퇴장하기를 기다리며 호텔 입구에 진을 쳤으나 미 국무부 공보 담당자는 “오늘은 힐 차관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념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측은 앞서 회담장을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시설이라고 밝혀 많은 기자들이 미 대표부 건물로 몰려갔으나 회의 시작 1-2시간 전에는 회담 장소가 아스토리아 호텔 내 유엔 대사관저임을 알아내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회담은 개막회의에 이어 저녁 식사를 하는 정도로 알려져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많았으나 회담 시작 4시간이 훨씬 넘은 저녁 10시 5분경에야 북측 대표인 김 부상이 호텔 밖으로 나왔다.

김 부상의 얼굴은 반주를 꽤 마신듯 붉어져 있었으며, 미소를 머금은 밝은 표정이어서 이날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 관측을 낳았다.

한편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첫 회의가 열린 아스토리아 호텔 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관저는 32층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시 관저와 인접해 있어 관심을 모았다.

유엔 주재 미 대사 관저는 이 호텔 펜트 하우스이며, 관저 보수작업으로 이 호텔에 마련된 반총장의 임시 숙소는 32층 스위트룸으로 거의 붙어있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반총장이 양측 대표들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현지시간)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4시간여에 걸친 첫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와 만찬을 마친 뒤 밤 늦게 밝은 표정으로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북·일 국교정상화회의 하노이 일 대사관서 시작

북핵 2·13 합의에 따른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7일 오전 9시30분(이하 현지시간) 하노이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속개된다.

하노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대사와 일본측 수석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原口幸市) 대사가 6일 오전 일본 대사관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7일 오전과 오후 번갈아 가며 일본과 북한 대사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8일에는 첫 날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에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이후 약 1년1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인 납북 문제와 일제 36년간의 강제동처에 대한 배상 문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탄압 중지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송 대사는 이날 예비

접촉 장소인 대우호텔 근처의 일본대사관에 들어갈 때와 회의가 끝난 뒤에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 전혀 논평을 하지 않고있는데 관계자들은 회담이 종료된 뒤에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한편 하라구치 일본측 수석대표는 숙소인 대우호텔에서 일본 언론들을 상대로 예비접촉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서두르십시오!**  
**동원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동원동 상가빌딩 상가 임대  
 동원동 상가빌딩 상가 임대  
 동원동 상가빌딩 상가 임대

**황토**  
**흙침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황토중립이므로 가족과 건강을 지킵시다!**

황토  
 황토  
 황토